

임실군, 공공·민간 주택 공급

공공임대 420세대·민간분양 158세대 총 578세대 예정... 인구 유입 희소식

임실군에 35사단 군무원과 농공단지 이전기업 근로자, 주민들을 위한 신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포함하여, 총 578세대의 신규 주택이 지역 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00세대 규모의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임실 제2농공단지 기업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근로자 거주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00세대 규모의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임실군 내 기업체와 지역 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의 민간 분양주택 공급 계획도 활발하다. 임실읍에는 현재 중·대



오수 공공임대주택

형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 129세대가 착공 중으로 2025년도 말에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오수면에 29세대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이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로 2025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임실군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지역 내 모든 세대의 계층이 주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4년 강천산군립공원 가을 성수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강천산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순창군, 10월 18일~11월 17일 가을 성수기 기간

순창군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4년 강천산군립공원 가을 성수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이번 판매장 운영은 가을 단풍 절정기를 맞아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특산물 판매장은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창의 맛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순창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해당 기간 내에 강천산관리사무소(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97, 2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강천산관리사무소(063-650-5542, 063-650-1672)로 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특산물 판매장은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창의 맛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순창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사고 대응 합동 훈련

위기대응 상황 공유·역량 강화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대규모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비하여 27일 남원시 월락정수장에서 유관기관(환경부 전북북부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 전북 14개 시·군 상수도담당자)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타 공사 중 상수도 제수밸브 무단 조작으로 남원시 동 지역 대규모 수질민원(탁수) 발생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수질사고 발생시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는 자체 상황관리회의를 개최하고, 100세대 이상 또는 3일 이상 지속되면 남원시장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사고대응과 상황 관리,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전북 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청,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기술·인력·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은 사고발생 접수부터 초기대응, 상황전파, 현상수습

조정관 과정, 원인조사, 수돗물 정성화를 위한 조치 등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졌다.

남원시 박영재 안전건설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실제 재난 발생시 위기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역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협조 및 현장지원으로 재난 상황 수습에 많은 도움이 됐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소년 보호 민관합동 단속

남원시는 지난 26일 2학기를 맞아 도 통동 변화가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남원시(여성가족과, 보건소), 남원교육지원청 그리고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 기관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 힘을

모았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술·담배(전지담배) 판매업소 대상 청소년 판매금지 홍보 및 계도 △호프집, 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 표시의 부착 여부 및 구역 적정성 등이며,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정



소년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7일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명된 참가자가 기부 참여를 인증한 뒤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내 구청장으로부터 챌린지 주자로 지명받은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내역을 인증하고 다음 주자로 최훈식 장수군수를 지명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건전한 기부문



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2년 연속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병내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어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부자와 군민이 공감하는 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가을축제 연계 가공상품 홍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3대 대표 가을 축제와 연계, 남원의 대표 농산물인 백향과를 활용한 가공상품 '원푸드'를 홍보하는 특별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의 식업지부 선정 모범음식점(40여) 업소에서 축제 기간 식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원푸드 가공 시제품인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남원의 외식업체와 농업을 연계한 남원형 미식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남원시의 전략적 목표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백청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7일에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 외식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원푸드 가공상품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임실군이 지난 25일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참여위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24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인 김석 강사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과정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예산학교 교육에 이어 10월 중 주민참여예산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뜻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